“불법의 연꽃, 평택서 피어나다”



법화종 공익법인 운흥사(운영위원장 현진 스님)는 6월 22일 평택시 안중읍 대일빌딩에서 평택지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참석한 사부대중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공익법인 운흥사, 6월 22일 ‘평택지점’ 개원

평택=노덕현 기자

불법의 연꽃이 평택 도심에 피어났다. 대한불교법화종 전법거점인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일빌딩에 개원을 알리고, 법화경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자비실천 도량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은 장대순 보살이 자비심으로 평택 대일빌딩을 온전히 희사함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법회 현장에서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보살의 지극한 발원이 500여 지역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장 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전에 자비보살행을 실천하고자, 지상6층 지하1층에 달하는 대형빌딩 자산을 운흥사에 시주했다. 이에 공익법인 운흥사는 개원법회에서 공로패를 헌정하며, 보살의 원력을 길이 전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운흥사 주지이자 운영위원장인 현진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장대순 보살님께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라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고 감동스러웠다. 작은 도량의 주지로서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장 보살님의 시주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다”며 “이 복덕을 연결해주신 법화종 충북교구 관음사 도원 스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장대순 보살, 평택 대일빌딩 희사
전법포교 원력에 수희 동참
안중읍내 지상6층 대형건물
공익법인 운영위 체제 활동 예정

또한 스님은 이번 평택지점 개원에 대해 “이곳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모두가 이로운 자리’, 법화의 가르침을 펼치는 공익적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저 혼자가 아닌 여러 도반 스님들과 함께, 누구나 활용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인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화종 전법도량으로 탄생에 법화종 총무부장 현묵 스님이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축사를 대독하며 개원의 의미를 더했다. 축사에서 관효 스님은 “사찰의 개원은 단순한 공간의 개방이 아닌, 법의 향기가 깃들고 중생의 마음에 등불이 밝혀지는 시작”이라며 “평택지점은 시대가 요구하는 자비와 지혜의 도량이자 법화종 법맥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흙 속에서도 한 점 더러움 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평택이라는 도시의 중심에서 피어난 운흥사의 연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맑고 바르게 전하는 청정 도량이 될 것”이라며, 주지 현진 스님과 시주자 장대순 보살의 원력에 깊은 감사와 찬탄을 표했다.

끝으로 〈법화경〉 서품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정진하는 이가 바로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흥사 평택지점이 마음의 쉼터이자 수행의 공간으로 널리 회자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이번 운흥사 평택지점이 개원하기 까지 큰 역할을 한 법화종 충북교구 관음사 주지 도원 스님은 직접 경과보고를 맡아 개원 의미를 되새겼다.

도원 스님은 “2600년 전 수닷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해 최초의 불교 사원이 세워졌듯, 스님들의 전법포교 원력을 듣고 도량을 희사한 장대순 보살의 공덕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잇는 도량으로 자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도량이 불보살의 법등이 끊임없이 법화되는 불국정토를 펼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도량을 희사한 장대순 보살은 말을 아끼며 “아무쪼록 스님들의 전법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운흥사 평택지점은 운영위원회 중심의 사찰 운영 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포교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운영위원회는 운흥사 현진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영경사 혜문 스님 △해월사 해월 스님 △광덕사 지성 스님 △심원사 송열 스님 △금륜사 승일 스님 △관음사 도원 스님 등 7명의 스님들로 구성돼, 사중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적 수행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운흥사 평택지점 3층은 공익법인 사무실, 4층에는 불교박물관 등이 자리한다. 공익법인 운흥사는 불교문화 보급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전국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평택지점 개원을 계기로 경기 남부권 신행거점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법회는 △부산불교연합산하 무형문화재 제9호의 장엄한 불공의식 △개원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사부대중의 발원문 낭독 등 본행사와 함께 사물놀이, 살풀이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 대중은 대일빌딩 인근에서 지역민들과 공양을 함께 나누며 개원의 기쁨을 나눴다.



법화종 공익법인 운흥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일빌딩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자비실천 도량으로 첫발을 알렸다.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까지는 법화종 스님들의 전법포교 행을 지원하기 위한 장대순 보살(사진 오른쪽)의 희사가 있었다.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 인연을 맺게 해준 관음사 주지 도원 스님과 장대순 보살, 공익법인 운영위원장 현진 스님 등 대중이 4층에 위치한 불교박물관을 돌아보고 있다.


공익법인 운흥사 운영위원회는 △영경사 혜문 스님 △해월사 해월 스님 △광덕사 지성 스님 △심원사 송열 스님 △금륜사 승일 스님 △관음사 도원 스님 등 7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현진 스님은 인삿말을 통해 법화종 운흥사 평택지점을 법화 가르침을 펼치는 공익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운흥사
본 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3길 71-77 와룡산 운흥사 (남강 절벽 위 방생도량)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2길13 대일빌딩 3층